

# 전종호 씨, 향토음식 경연대회 우승상금 기부

### 장흥갯마을횃집, 인재육성장학금 100만원 기탁



전종호 장흥갯마을횃집 대표는 지난 7일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1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전종호 대표는 지난해 연말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품 100만원을 기부하는 등 평소 나눔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에 기탁한 인재육성장학금은 올해 군민의날 보림문화제에서 열렸던 향토음식 경연대회에서 우승한 상금으로 알려졌다. 전종호 대표는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

을까 생각하다가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성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이사장은 "지역의 어린 꿈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탁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지역의 인재들을 훌륭히 키워내는 데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임민기 기자

## 포토뉴스



한국마사회 광주지사, 연이은 기탁 '훈훈' 광주 등구는 최근 한국마사회 광주지사로부터 2300만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 광주지사는 지난해 2200만 원을 기탁한 데 이어 올해도 지원 준비 아동 자조 모임과 시설아동 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한 기부 활동에 나섰다. /김도기 기자

## 광주교육청 'AI코딩교육' 지원...미래인재육성 본격 추진

### 'SW미래채움' 코딩 협력 강사 70명, 7월부터 초등학교 지원



광주시교육청이 미래인재 육성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AI·SW 교육 사업'을 시작한다. 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로 찾아가는 AI·SW 교육 사업'은 영어와 국어처럼 '소통 언어'가 된 AI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됐다. 초등학교부터 ▲AI기초소양 함양 ▲컴퓨팅 사고력 신장 ▲AI융합코딩

교육을 위한 협력 강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신청한 초등학교 88개교, 586학급 모두를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시청과 협력해 과기부 주관 'SW미래채움' 공모를 거쳐 사업비 84억을 확보했다. 올해부터 3년 동안 단위 학교의 AI코딩교육을 지원할 전

문 강사를 양성해 학교 현장의 AI·SW교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AI 미래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초·중학교 소프트웨어(코딩)교육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1수업 2교사 협력수업 체계를 구축하게 돼 단위 학교의 AI교육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구)광주과학교에 구축 중인 'SW미래채움센터'를 통해 초·중학생 대상으로 'AR/VR', '로봇', 'IoT'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상시 제공할 예정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미래 인재가 갖춰야 할 기초소양인 AI코딩 수업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며 "모두가 만족하는 질 높은 교육지원을 통해 AI광주미래교육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조선주 기자

## 광양희망도서관 초등북스타트 꾸러미 지원



광양시는 가정에서 형성된 독서 습관을 학교생활까지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내 초등학교 1학년 500명에게 초등북스타트(책날개) 꾸러미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책읽는사회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2023년 초등북스타트 꾸러미 지원사업'에 광양희망도서관이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진행하게 됐다. 꾸러미는 북스타트코리아 도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그림책 '겨울 별', '미움' 2권과 학부모를 위한 가이드북, 북스타트 가방으로 구성됐다. 광양시립도서관(△회광 △웅강 △중마 △금호)에서 꾸러미를 배부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희망도서관은 지난 5월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학교(세종초, 옥포초, 진상초, 진월초)를 찾아가 꾸러미를 전달하는 '찾아가는 초등북스타트 책날개' 행사를 운영했다. 행사는 학생들이 독서에 흥미를 갖고 책 읽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꾸러미 전달과 더불어 그림책 읽어주기, 동극 공연, 책 놀이 활동 등 배부 도서를 활용한 다채로운 독서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해 아이들에게 책과 함께 하는 즐거운 시간을 선물했다. /김도기 기자

## 이번 주말 무등산 인문 축제로 오세요... '인문 For:est' 개최

### 지식·마음·예술·자연·인문도시 다섯 테마별 체험

등구는 오는 10~11일 무등산 일원에서 지식, 마음, 예술, 자연, 인문 도시 등 5가지 산책을 테마로 하는 올해 첫 무등산 인문 축제 '인문 For:est'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무등, 숲, 숲이 있는 인문 포레스트'를 주제로 한 이번 축제는 무등산 생태·역사·문화자원을 발견하고 시민과 공유하고자 11개 무등산권 기관·단체가 뜻을 모아 기획했다. 행사 첫날인 10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개막행사 '초여름의 무등마중'은 학운초등학교에서 문빈정 사까지 1.7km 구간을 걷는 '무등 인문 걷기'를 시작으로 축제의 서막을 연다. 특히 이번 축제의 핵심은 '5가지

산책' 테마별로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먼저 '지식 산책'은 이 시대 인문을 고민하는 다양한 화자들과 소담·성찰을 위해 마련한 자리로 다양한 인문학, 무등의 도시인문학(인문 포럼), 인문 약국, 인문 놀이터 등으로 구성됐다. 이 중 다정한 인문학은 10일에는 정지아작가의 '미운 사람여쁜 사람', 가수 허림의 음악 토크 공연에 이어 11일에는 방송인 타일러의 인문 토크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면 박스를 탈출하라'로 이 시대 청춘들을 응원한다. 시민자유대학이 주관한 '무등의 도시인문학' 강좌는 10일 무등현대미술관에서 진행된다. 이날 박구용



전남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아 김호석 수목 화가의 기초 발제 '그림으로 만나는 광주 정신'에 이어 각 분야별 패널들이 '인문도시 등구'의 이론적 토대와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김도기 기자

## 순천학부모회 연합회, 동반자 역할 '톡톡'

### 2023 순천학부모회 연합회 임원 정기협의회



순천교육지원청 학부모지원센터는 지난 7일 순천비타민센터에서(사은활동실) 순천 학부모회 연합회 임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부모회 연합회 임원 정기 2차 협의회를 실시했다. 순천학부모회 연합회는 지난 4월 18일 학부모회 대표 상반기 협의회를 통해 총 임원 12명을 선출했다. 이어 4월 19일 1차 임원 정기협의를 통해 전년도 임원 12명과 신규 임원 12명에게 감사패 및 임명장 전달식

을 가졌다. 또한 임종윤 순천교육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순천 학부모회 연합회의 활동 방향과 교육청 차원에서 연합회 활동 지원사항 등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실시된 2차 임원 협의회에서는 총연합회 회장의 진행으로 각 학교급별 사례 나눔, 학부모 예산 사용 방법 등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뜻깊은 소통의 자리가 됐다. 이후로도 순천 학부모회 연합회에서는 교육자치기구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임원들 정기 모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 학교별 교통안전 릴레이 캠페인 활동을 추진하는 등 순천학부모회 연합회는 순천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아름다운 동반자의 역할을 멋지게 해내고 있다. /순천=조순의 기자

## 광영동 통장협의회, 매실 수확 일손돕기

### 다입면 소학정·내입마을 농가 찾아매실 수확 구슬땀



광양시 광영동은 지난 7일 광영동 통장협의회와 공무원 30여 명이 자매마을인 다입면 소학정, 내입마을에서 매실 수확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광영동 통장협의회는 해마다 영농철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매실 수확과 선별 작업을 돕는 등 봉사활동을 펼쳐 왔으며 지역사회 봉사과 이웃사랑 분위기를 확산시켰다. 백계준 광영동 통장협의회장은 "농촌 고령화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앞으로도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사랑 실천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미의 광영동장은 "바쁜 일정에 도 불구하고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에 발 벗고 나서주신 광영동 통장협의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농가에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광양=조순의 기자

## 10일 '제1회 월등향매실 수확체험행사'

### 순천 월등면 갈평리 갈전마을 일원서 개최



순천시 월등면은 오는 10일 오전 11시부터 '매실과 함께하는 피로야 가라'라는 주제로 '제1회 순천시 월등향매실 수확체험행사'를 갈평리 갈전마을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매실 가공품 전시, 매실음료 시식, 매실아이스크림 판매 등 매실관련음식, 매실수확, 직접 탄 매실로 청 담그기 체험행사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으며, 중식으로 매실

국수 등 매실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 또한 제공한다. 수확체험행사는 현장 및 사전 접수를 통해 선착순 100명 이내로 모집한다. 월등은 1964년 전국 최초로 매실을 들여와 지금까지 재배 및 수확을 왕성히 하고 있으며, 특히 월등 매실은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양질의 토양, 충분한 일조량으로 여타 매실에 비하여 월등한 품질로 순천을 대표하는 농산물 중 하나이다. 김구현 월등면장은 "귀농귀촌을 꿈꾸는 사람이나 답답한 도심에 지친 도시민이라면 향긋한 매실이 있고, 아름다운 농촌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월등면에 오셔서 여유를 즐기시길 바란다"면서 "월등향매실 수확체험행사로 아름다운 월등면을 널리 알리고 순천시 작은 면 구석구석까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조순의 기자